

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홉째, 채소, 과채, 과일, 인삼, 축산, 기타 식량작물 일부 품목은 대농기구상각비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효율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대농기구 운영에 따른 배분효율성 감소로 판단되는데, 농가는 무리한 대농기구 구입을 자제하고, 공동구매, 농기계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품목에서는 대농기구상각비 비율이 기술효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농가의 농기계 활용 능력 제고와 농가 현실에 적합한 적정기술 보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선도농가의 기술효율성 변동 추이를 평가한 품목의 경우 선도농가의 기술효율성은 증가 추세이나, 전체 농가의 기술효율성은 감소하였다. 이는 선도농가와 일반농가의 기술적 격차 확대에 따른 결과로 ‘선택과 집중’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품목별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가. 채소 : 배추, 무, 고추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1) 배추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배추의 조수입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0%로 생산비 증가율(2.8%)보다 높다. 최근 5개년 상위 7개 생산비 항목은 모두 상승추세에 있다. 토지자본용역비의 상승률이 가장 높으며, 자가노력비와 고용노력비를 합한 노력비가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3%로 매우 높다.

배추 재배농가의 경우 효율적인 고용노동력 활용방안 모색 필요하다. 배추의 생산비 중 노력비는 전체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고용노력비가 높은 농가의 경우 경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다. 배추 품목의 특성상 기계화가 어렵고, 재배관리부터 수확 및 운반 작업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고용노동력은 필수불가결하며 고용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그에 따라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2) 무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무의 조수입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7.1%로 생산비 증가율(4.7%)보다 높다. 최근 5개년 상위 7개 생산비 항목은 모두 상승추세에 있다. 대농기구상각비 상승률이 가장 높으며, 자가노력비와 고용노력비를 합한 노력비가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7%로 매우 높다.

무 재배농가의 경우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규모화 방안 모색 필요하다. 무 농가의 경우 재배면적이 클수록 경영효율성이 높아지는 규모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배면적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3) 고추 농가 경영효율성 개선 방안

고추 농가의 이윤효율성 원인분석 모형 추정결과 농가 경영 특성 변수 중 재배면적, 임차지